

# 장성군, 로컬푸드 출하자 1500농가로 늘린다

200여명 참여 출하자 결의대회  
‘장성형 푸드플랜’ 사업 가속  
공공급식센터 내년 7월 준공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장성로컬푸드 출하자들이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내년 로컬푸드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푸드플랜에 장성 맛을 더하다’를 주제로 최근 열린 장성로컬푸드 출하자 결의대회에는 지역 먹거리위원, 농업인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함께해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생산분야 우수 출하농가 표창과 장성형 푸드플랜 경과 보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안대성 원장의 푸드플랜 특강, 생산자 결의문 낭독,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장성군은 올해 개장한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공동 실시한 ‘2022년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우수농가 발굴사업’에 선정됐다. 장성군은 올해 개장한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공동 실시한 ‘2022년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우수농가 발굴사업’에 선정됐다. 장성군은 올해 개장한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공동 실시한 ‘2022년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우수농가 발굴사업’에 선정됐다.

역머거리 지수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협경제지주와의 협력으로 건립 중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공공급식 시장을 개척해 ‘장성형 푸드플랜’ 성공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성형 푸드플랜은 전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군(軍)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 먹거리 정책이다. 농업인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고, 유통분야는 행정과 농업이 책임지는 이원화 시스템이 특징이다. 장성군은 현재 1200명 규모인 로컬푸드 출하 약정 농가를 내년까지 1500농가 규모로 조직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매출 38억원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한 해였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일류 농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희 기자 yongho@

## 화순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화순팍 포인트 쿠폰’ 선정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화순팍 포인트 쿠폰’이 선정됐다. 화순군은 최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군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화순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순팍 포인트 쿠폰’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화순팍 포인트 쿠폰이 특정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화순군에서 생산·제조되는 농특산물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군은 이번 답례품 선정으로 시행 초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은 관계자는 “화순팍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공적 정착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강진군농업기술센터 민원행정 협업 전국 우수기관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2년 민원행정분야 협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민원행정분야 우수기관은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중에서 농업·농촌 현장 민원 지원에 협력해 민원성과 창출 공로가 뚜렷한 우수 협업사례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군 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된 ‘협업 우수기관 부문’에서는 작목별 영농현장 컨설팅 및 영농기술지원단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관련 농업기술 등을 현장에 보급·실천해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을 선발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쌀귀리 생육장애, 조생종벼 등의 원인구명을 위한 민원협력, 사인머스켓, 장미, 단감, 방울토마토 등 원예작물의 다양한 작목별 영농현장 컨설팅과 기상재해에 따른 생육불량 원인 규명 등 현장 기술지원단과 협업해 현장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농업인의 신뢰도 향상과 지역특화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만 썰물 기다리는 큰 고니떼 지난 20일 강진군 강진을 강진만생태공원에서 월동 중인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무리가 만조로 먹이활동이 어려워지자 한가로운 모습으로 썰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 담양군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창평면 최영덕씨 영농일지 대상

기록물 166점 접수...25명 수상  
담양군이 주최한 제1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창평면 최영덕씨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담양의 변천, 생활상 등 과거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발굴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당신의 소중한 기록, 담양역사 한 페이지에 기억되다’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6점의 기록물이 접수됐으며, 기록물평가심사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상 19명 총 2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작은 창평면 최영덕씨가 출품한 ‘영농일지’가 선정됐다. 해당 일지에는 1984년부터 2000년까지의 날씨, 온도, 농작업에 관한 내용과 그날그날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어 생활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혼례의식 중 거러기에 절하는 예식 순서가 기록된 ‘혼례전안례’와 1964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된 봉산면 연동리마을 ‘봉서위진계규약’이 각각 선정됐다. 이는 전통 혼례풍습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1937년에 발행한 전라남도 도민



대상을 수상한 최영덕씨의 ‘영농일지’

중과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작성한 가계부, 그리고 봉산면장을 역임한 최봉진씨의 공무원 합격증서 및 발령통지서 등이 각각 선정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처음 개최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임에도 많은 군민께서 참여하여 손때 묻은 소중한 기록물을 담양의 역사보존을 위해 기꺼이 기증해 주셨다”며 “감사한 마음은 기증기록물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록유산으로 잘 보존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정된 기록물은 보존환경이 최적화된 기록관 서고에서 안전하게 보존하여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kwangju.co.kr

## 화순군, 쌀값 하락 피해 농가·농협 지원 나선다

경영안정대책비 5억 추가  
농협 손실액 5억원도 보전  
화순군이 쌀값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와 농협의 손실액을 지원한다. 화순군은 지난 20일 쌀값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5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농협이 입은 손실액 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쌀값은 식용곡의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와 풍작으로 인한 공급량 과잉이 겹쳐 전년 대비 25% 하락한 가격을 형성 중이다. 군은 농협이 입은 손실이 농업인에게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실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 원을 농협측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의 손실액 지원과 함께 쌀 생산기반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가에 지급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5억도 추가 지급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쌀 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군에서는 매년 약 20억(도비 40%, 군비 60%) 이상을 지급해 왔다. 올해는 비료, 농자재 값 등이 폭등해 매년 지급했던 금액으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5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이외에도 농협과 농가에 매년 쌀 포장재, 쌀 택배비, 공동선별비 지원 등 8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해 농가 경영 안정을 꾀하고 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표면적으로는 농협에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업인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강진군, 용혈암지 보존과 활용 학술대회

오늘 아트홀서...정민 교수 강연  
강진군이 22일 강진아트홀에서 ‘강진 용혈암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강진군은 강진 용혈암지(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47호)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혈암지는 백련결사로 널리 알려진 만덕사(현 백련사)의 8국사 가운데 제2세 정명국사, 제4세 진정국사, 제7세 진감국사가 수행한 유서 깊은 수행 공간이자 고려 불교의 한 성지이다. 학술대회는 용혈암지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조강연은 ‘다산과 강진 용혈’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가 나선다. 주제발표는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권혁주 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의 ‘강진 용혈암지 발굴조사와 출토유물’, 김희태 전남도 문화재위원의 ‘강진 용혈암지의 문화재적 가치와 활용방안’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은 황호군 전남도 문화재위원을 좌장

으로 박예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정정성 전남도 농업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각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담당해 다양한 시각에서 열띤 토론을 펼친다. 용혈암은 2013~2014년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2동과 석영유구 2기 등이 확인됐다. 여래상과 보살상, 나한상 등 다량의 청자·소조불상도 출토됐다. 석가삼존과 16나한상으로 제작한 청자는 매우 드문 사례이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강진 고려청자 요지에서 생산된 불상으로 파악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추후 정밀발굴조사와 문화재지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불교문화의 성지로 기록되고, 나아가 이를 연계한 강진군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발굴조사를 통해 용혈암지가 고려시대 고승의 수행 공간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다산 정약용이 남긴 문헌과 발굴조사 성과를 종합하면 용혈암지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장흥군의회, ‘전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 통과

주민 2042명 청구인 등록  
장흥군의회는 전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6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로 청구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1월 13일 장흥군 풍력·태양광 군민대책위원회(이하 군민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전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로 정당한 자연환경에 무분별하

게 들어서는 발전시설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청구됐다.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주민 2042명의 청구인 명부를 장흥군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 제한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반경 300m 안에 입지 제한 ▲경지정리 및 대체농지 사업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풍력발전시설은 5호 이상의 가구나 가족 및 사유시설로부터 2km 안에 입지 제한 등이 있다. /장흥=김홍희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베트남 하우장성 비탄시와 나주시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나주시가 베트남과의 농촌 인력 교류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청사 이화실에서 베트남 하우장성 비탄시(市)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동 반 타인 하우장성 인민위원장, 르우 반 유 비탄시 부인민위원장 등 양국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비탄시는 9개동, 인구 7만2000명이 거주하는 하우장성의 정치·문화·물류 중심(성도) 도시이다. 메콩강 수로망을 활용한 운송·물류 여건이 좋으며 농업이 전체 산업 비율의 약 90%를 차지한다. 나주시와 베트남 비탄시는 협약을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나선다. 협약식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따른 인권보호, 농업 교류사업 지원, 근로자 선발 및 적응 훈련,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비탄시 공무원 파견에 따른 근로자 관리와 매월 베트남 경찰의 현지 가족 면담 지원 등의 항목도 포함됐다. 한편 나주시는 최근 법무부의 계절 근로자 배정 심사 완료에 따라 내년 상반기 205명의 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정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